2008 전망과 트렌드 ⑤인생 이모작 시대

평생직업 옛말, 제2직업 찾아라

수명 늘고 정년 줄어 길어진 노후 '실버 취업' 붐
취업 박람회·직업 훈련원 40대 이상 고령자 북적

수명연장과 정년 단축 등으로 '실버 취업'이 늘면서 '제2의 직업' 교육 붐이 일고 있다.

60대 초반의 젊은(?) 노인들의 경우 휴식과 여유를 즐기기에는 남은 날들이 너무 긴데다, 50대들도 갑작스런 조기 퇴출과 정년 단축에 대비 '2모작 인생'을 미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추세는 통계에도 이미 반영되고 있다. 55살 이상 취업자가 2006년 처음으로 4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17.4%에 이르는 수치이며, 취업자 5.5명 가운데 1명은 이른바 '실버 취업자'인 것이다. 이들 실버 취업자는 5년전인 2001년(332만7천명)보다 20.9%(69만8천명)나 늘어났다. 지난해 6월과 11월 광주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박람회'와 '실버취업박람회'에도 일자리를 구하려는 수천명의 노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광주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노인 취업 훈련 프로그램과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에도 '제2의 직업'을 구하려는 고령자들의 열기로 가득하다.

지난 한 해 동안 광주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주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훈련생 7천여명 중 20%인 1천500여명이 40대 이상의 중·고령자였다. 남성의 경우 자동차 정비에, 여성들은 요리 훈련을 선호했다.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 또는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주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도 인기였다.

허드렛일인 경비·청소 직종을 제외한 제조업체 등에서 일정기간 현장연수 등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는 60여명의 고령자들이 몰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 연 6회에 걸쳐 실시하는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에도 매회 20여명의 고령자들이 지원하는 등 '실버 취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각 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생 대부분도 40대 이상의 중·고령자이다. 재즈 피아노 지도사·원예요법·부동산전문 상담사·병원서비스 코디네이터·예절교육지도사·동화구연지도사 등 대부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강좌에 많은 수강생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이 월 급여 수십만 원대인 경비·청소·주유원 등 기간제 근무이거나 허드렛일 뿐이어서 노인들이 젊었을 때의 특기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중인 김동강(65)씨는 "돈 보다 내 일자리를 갖고 싶어 각종 취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적당한 일자리가 없다"면서 "나 같은 노인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사회적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 〈끝〉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환경시설 공단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 환경부 공모전 최우수

광주시 환경시설 공단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효율을 극대화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6일 "광산구 본덕동 제2하수처리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환경부와 환경자원공사가 주관한 2007년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공모전에서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이 시설을 시공한 광주의 중견 건설업체인 남광건설(회장 김대기)이 시공 우수업체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시설은 전국 최초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신재생에너지인 메탄가스로 전환, 연료로 사용해 연간 4억5000만원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자치구 새해 청사진 ③북구

300개 중소기업 도와 경제 살리기 최우선

"올해는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서남권의 생산·수출도시로 거듭나는데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송광운〈사진〉 광주시 북구청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본촌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과 중소기업제품 상표디자인 개발, 소상공인 유료 컨설팅 사업, 중소기업 우수 기술제품 제작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관내 300여개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제품 등을 보관·운송할 수 있는 첨단 물류지원센터를 다음달 중순께 완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인근에 비엔날레 타운 특구를 조성해 남도음식 명가촌 육성, 비엔날레 상징물 건립,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 경제와 문화를 접목시켜 나갈 예정이다.

송 청장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소외 계층의 생활안정을 돕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구현, 성장과 동시에 분배에도 역점을 둘 요량이다. 오는 2010년까지 북구 효령동에 11만㎡ 규모의 노인복지 타운과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노인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본촌동에 150개 병실 규모의 장애인 전문병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송 청장은 "그동안 복지정책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며 "청소년은 밝고 창의적인 성장에 목표를 두고 어린이회관 건립을, 여성은 경제활동 등 사회참여 공간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들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과 자립기회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 수련관 증축과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 ▲건강체험 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보건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송 청장은 이어 고객 중심의 참여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민원발급 창구를 개설하고 '북구 비전 365 오피니언 그룹', '온라인 고객평가단'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일곡동 비위생매립지 2단계 정비사업 △북구 오룡동~장성군 경계도로 확·포장 공사 등 도시기반 확충사업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북구 인구 46만명 동구 4배

광주 인구 작년 5,600여명 증가…구간 격차 심화

광주시의 인구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지만 자치구간 인구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41만3천444명으로 2006년 말에 비해 5천646명(0.4%)이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천897명 늘어난 70만1천561명, 여성은 2천749명이 증가한 71만1천883명으로 엇비슷한 성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는 46만6천181명으로 집계된 반면 동구는 이의 4분의 1 수준인 11만5천66명에 그쳐 공공기관 등의 기구 축소 기준선인 10만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동구 인구는 지난해 한해동안 980명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 역시 인구 축소를 우려한 동구청이 조선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전입 신고를 유도하는 등 인위적 노력의 결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동림지구, 첨단·신창지구 등 북구와 광산구 일대 대단위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라 서구(30만7천72명)와 남구(20만9천24명)의 인구는 각각 2천290명과 2천720명이 줄어든 반면 북구와 광산구(31만6천101명)는 각각 5천196명과 4천48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자치구간 인구 격차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동구측이 주장하는 구간 경계조정 등 인구 불균등 해소 요구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후식기자 who@

광주도시철도공사 문자메시지 민원 접수

광주도시철도공사는 8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민원을 접수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사측은 오는 3월로 예정된 광주지하철 1호선 완전 개통을 앞두고 음성통화가 어려운 승객이나 문자메시지를 선호하는 젊은 층을 겨냥, 이같은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민원 접수 문자메시지는 수신자 번호를 010-2922-2844로 입력하고 전송하면 된다. /정후식기자 who@

대입 논술·면접 시작 광주교대 정시모집 1단계 전형 합격자들이 7일 논술고사를 치르고 있다.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논술·면접고사가 이날 광주교대를 시작으로 광주·전남지역 대학에서도 일제히 치러진다. 광주교대(가군)는 논술고사를 치른 다음날인 8일 면접을 실시한다. 조선대(가군)는 8일, 전남대(나군)는 11일 각각 면접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논술고사는 없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서부소방서 심정지 환자 소생율 높인다 '하트 세이버 배지제' 운영

광주서부소방서는 구급대원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응급처치 유도로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하트 세이버 배지 제도(Heart Saver Badge)'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심정지 환자를 적절한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구급대원 및 시민에게 배지를 수여, 신속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고안됐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 당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 1996년 13.0명에서 지난해 29.2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으나 병원 이송 전 환자의 생존율은 4%에 그쳐 선진국(28~4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담

●당직변호사(8일)	
이건영	226-2511
●법무사회 법률상담(8일)	
이영우	239-1809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고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광주경찰청	222-0112
전남경찰청	36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기동수사대 (광주)	229-0118
(전남)	367-011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1389